

광주, 중학 내신으로 고교 배정

시교육청, 내년부터 공·사립 균등배정키로 학부모·학교 "선택권 제한하나" 강력 반발

광주시 교육청이 내년부터 사립고에 우수학생이 풀리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중학교 내신 등급별로 학생을 공·사립학교에 골고루 배치하는 방향으로 고교배정 방식을 손질키로 했다.

이는 사실상 사립에 뒤처지는 공립고의 학력을 끌어올리려는 방안으로, 학생들의 고교 선택권이 크게 제한되는 것은 물론 학교 간 교육여건 개선 노력 등 선의의 경쟁구도를 무너뜨릴 수 있어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시 교육청은 27일 본청 회의실에서

'2013년 고교 배정방식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지리정보시스템, 학생선택권, 내신석차 백분율 등을 고려, 고교를 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현행 방식에 없는 내신 석차 백분율을 새로 포함한 수정안이다. 골자는 학생 정원 범위 내에서 내신 등급별로 학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 인원을 정해 우수 학생들이 사립고에 풀리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현재 고교 배정 방식은 선(先)지방 2개 학교에서 정원의 40%를 먼저 뽑고 나머지 60%는 지리정보시스템

(GIS)으로 학생이 선택한 5곳 가운데 한 곳을 배정한다. 이 방식은 추천배정임에도 학생 대부분이 사립고를 희망해 그만큼 사립고에서 우수학생을 받을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개선방안은 성적에 토대로 학생들을 사실상 강제배정 하는 졸속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광주지역 한 학부모는 "그나마 제한적인 학교 선택권마저 크게 제한하는 조치가 될 것"이라며 "공립학교에 대한 신뢰회복과 교육력을 끌어올리는 조치없이 공·사립간 학력격차를 줄이려는 것은 결국 공멸불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학교간 선의의 경쟁구도를 무너뜨리는 조치가 될 것이라 고 우려했다.

사립고교의 한 교사는 "사립고교가 열심히 가르쳐서 학생들의 선호가 높아진 배경은 무시하고 단순히 우수 학생 선점 효과만을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학생 교육에 힘을 쏟는 학교와 그렇지 않는 학교에 학생들을 고루 배치한다면 어느 누가 열심히 학생을 가르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축소되면 비선호 학교 배정에 따른 반발과 우수학생의 타지역 진학 등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시 교육청은 다음달 16일까지 시의회, 관련단체 정책설명회를 거쳐 오는 23일 추천배정위원회 심의 후 교육감이 결정할 계획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도 교육청 청렴홍피 운영

전남도교육청은 청렴문화 확산과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전용 홈페이지(http://clean.jne.go.kr)를 구축,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청렴 홈페이지는 청렴정책 홍보, 청렴교육, 청탁등록, 청렴 업무즈만, 공무원 행동강령, 참여마당 등 6개 메뉴로 운영된다. 또 교육청 홈페이지의 교육감 신문고와 부패방지신고센터 등과 연계해 연중 운영하게 된다.

청렴 시책과 감사방향, 감사기관별 지적사항, 처분내용, 일선 기관, 학교 등의 업무추진비 내용, 감사 우수사례 등을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05분 해질 18시 26분 달뜨기 10시 04분 달짐 1시 1분

남해안 밤부터 비

차차 흐려져 밤부터 남해안 일부지역에 비가 오겠다.

구분	기온
광주	구름맑음 -2.8℃
목포	구름맑음 -3.7℃
여수	구름맑음 1.7℃
나주	구름맑음 -5.8℃
완주	구름맑음 -1.8℃
구례	구름맑음 -4.9℃
강진	구름맑음 -3.8℃
해남	구름맑음 -4.8℃
장흥	구름맑음 -5.9℃
순천	구름맑음 -2.9℃
영광	구름맑음 -4.7℃
진도	구름맑음 -2.7℃
전주	구름맑음 -4.8℃
군산	구름맑음 -3.6℃
남원	구름맑음 -7.9℃
옥산도	구름맑음 2.6℃

구분	중량	파고	체감온도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1.0m	관심	보통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0m	관심	보통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1.0~1.5m	관심	보통	낮음

◇주간날씨

날짜	날씨	최저/최고
29(수)	☀	1/12
3/1(목)	☁	2/10
2(금)	☁	5/9
3(토)	☁	4/11
4(일)	☁	4/8
5(월)	☁	5/9

기상내선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역방기상청]

농어촌 의료서비스 불균형 심각

전남·북 12곳 암 검진·병원급 의료기관 전무

의료 자원이 대도시에 집중되면서 상당수 농어촌 지역에는 암 검진기관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는 등 의료 서비스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9년 국가 암조기검진 사업에 착수, 일단 의료급 여수급권자부터 무료 암검진을 시행했다. 2011년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중에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하위 50%까지 검진대상을 확대했다. 나이는 만 40세 이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들이 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 등 5대 암을 자신이 사는 지역 검진기관에서 공짜로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그러나 전남·북 8곳 등 전국의 상당수 지역에는 암 검진기관이 없어 암 검진을 받지 못하거나 타 지역으로 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암 검진기관이 없는 곳은 신안·곡성 등 전남 2곳과 순창·장수·임실·무주·진안·완주 등 전북 6곳, 경기·강원·충남 각 4곳 등 총 35곳에 이른다.

이와 함께 영암군과 무주군·장수군·순창군 등 전남·북지역 4곳을 비롯해 평창군·화천군·고성군·양양군 등 강원 4곳을 포함해 전국 11개 시군구에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는 상황이다.

/최현배기자 chae@kwangju.co.kr



‘교복 나눔행사’ 광주시 광산구가 주최한 ‘교복 나눔행사’가 27일 수완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주민들이 교복을 고르고 있다. 구는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제공했다. 행사는 29일까지 진행된다. /최현배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동구 ‘응급시계 안전관리단’ 출범

‘어르신들에게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우리가 먼저 출동합니다’

광주 동구는 27일 최근 총 39명으로 구성된 동구 ‘응급시계 안전관리단’ 출범식을 갖고 관내 어르신들의 생활실태 파악과 관리, 위급한 상황 발생 때 치료 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응급 시계는 고향장 등 위급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어르신들에게 배포한 의료용 시계로 맥박 등에 이상이 발생하면 알람기능이 있어 관리자에게 통보되고 119구 조대와 함께 현장에 출동해 치료하는 시스템이다.

동구는 이번 안전관리단 출범으로 관내 500명에 달하는 응급시계 대상자 집을 순회 방문해 응급시계 올바른 착용법 등 대상자 관리에 한층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SINCE 1982

말 소리가 잘 안들린다구요?

국제보청기

www.kjhr.com

난청은 물론 이명까지 -젠 톤-

- 노인성 난청에 탁월한 보청기
- 자연스런 소리연출이 가능한 보청기
- 이명 완화에 효과적인 보청기

본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서울점 02-765-9940

목포점 061-262-9200

순천점 061-752-9940

장흥점 080-222-9975

‘공황장애’ 한방(韓方)으로 치료!

공황장애(恐慌障礙)를 글자대로 풀이하면 공포감에 당황하는 증상이라는 뜻이다. 마치 어린 새가 동우리 밖으로 나와서 새로운 환경에 무섭고 당황해 하는 것처럼 그런 증상이 우리 몸에 일어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들처럼, 집의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심장이 뛰고 숨이 막힐 듯하면서 어지러움과 식은땀을 흘리고 손발이 차가워지며 머리가 멍한 느낌을 느낀다. 동시에 무슨 응급상황이 신체 내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심장이 곧 멎어서 죽든지 아니면 뇌졸중으로 쓰러질 것만 같고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는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즉시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로 달려 가게 만든다. 그리고 병원에서 모든 검사를 해보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더라는 것이 공황발작을 겪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내용이다.

공황장애가 어떤 원인으로 인해 생기는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공황장애의 가장 중요한 발병 원인은 신체적인데 있다는 주장에 많은 신경의들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 몸의 중추신경계, 즉 뇌의 어떤 생화학적 기능장애 때문에 이 병이 생기는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어떤 학자들은 위험을 탐색하는 대뇌기능이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온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학자들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정보기능이 너무 예민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재로서는 공황장애는 유전적인 요인, 체질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및 정신적인 요인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방에서는 심담기허(心膽氣虛)와 간기울결(肝氣鬱結)을 중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심방약(心脾兩虛), 심신불교(心腎不交), 위중화해(胃中不和) 등의 원인으로도 볼 수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10726-증-9061호

경희한의원

사람들은 항상 성공을 향해 빠르게 달립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망과 결과가 맞지 않으면 못된다고 속이 상해하고 병까지 얻습니다. 이젠 목표를 조금만 낮춰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보다 더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자연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한 삶이며 병을 얻지 않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진료가 아닌 환자의 마음을 살피고 어루만지는 가족주의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료 과목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소아과, 침구과

진료 안내 **· 환병 / 스트레스 질환**

- 불안, 초조, 가슴떨림
- 상열감, 안면홍조, 경년기 장애
- 신경성 두통, 불면증, 우울증
- 수험생 집중력 저하

진료 시간 평 일 : 오전 9:30~12:30 / 오후 2:00~6:30
토요일 : 오후 4시까지 진료 공휴일/일요일 : 휴진

진료 문의 TEL 062)365-1541
광주 서구 화정동 추선회관 건너편

* 주자강 원혜 * 건물 앞쪽 엘리베이터가

공황발작의 증상의 특징은 첫째는 예기치 않은 중에 아무런 특별한 자극이 없이 갑자기 일어나는 사실과 그 발작이 보통 길어야 10분 정도로 짧다는 것과 몇가지 특수한 증상이 있다는 점이다.

- 1)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리거나 심장박동이 빨라짐
- 2) 땀을 흘림
- 3) 손, 발 혹은 몸이 떨림
- 4) 호흡이 가빠지거나 숨이 막히는 느낌
- 5) 흉통 또는 흉부 압박감
- 6) 질식할 것 같은 느낌(목이 눌리거나 졸리는 감각)
- 7) 메스꺼움 또는 복부 불편감
- 8) 자제력을 잃거나 미칠 것 같은 두려움
- 9) 비현실감 또는 미안증

10) 죽을 것 같은 두려움

11) 오한 또는 열감을 느낌

12) 어지러움과 쓰러질 것 같은 느낌 (어지러움, 불안정감, 머리 멍한 또는 졸도)

13) 감각이상(손발이 저리거나 마비되는 느낌)

한방에서는 공황장애를 마음속에 응어리진 갈등 즉 울화에 의해 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나타낸다. 치료제 방으로는 보혈안신제인 보혈안신탕이나, 소간해울탕 같은 소간해울탕 등을 주로 사용한다.

그러나 환자 한사람을 실제로 치료할 때 어떤 치료 전략을 세우고 약물을 어떤 것을 택하여 어떻게 사용

한느나 하는 것은 상당한 임상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

또 공황장애가 여러 다른 신체 및 정신장애와 동시에 이환(罹患)되어있는 경우 공황장애의 합병증으로 공포증, 예기불안, 약물 또는 알코올 남용, 우울증 등으로 복잡한 양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치료는 포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공황장애에 대한 치료가 늦어져서 이미 공포증이 매우 심해진 환자들에게는 약물치료 외에도 병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고, 환자들이 오해하거나 잘못 믿고 있는 여러가지 편견들을 바로 잡아주는 인지적 치료와 공포의 대상이 되는 장소나 상황에 불안감 없이 접근